

EARTHSEA  
TALK+  
SCREENING

## 어스시 토크+스크리닝

## 상영시간

10:00AM | 12:00PM | 2:00PM | 4:00PM

## 상영 프로그램

레일라 스티븐스, 〈그로 고〉, 싱글 채널 비디오, 29분, 2023

안치 (시와스) 린, 〈프스와기 테마하호이〉, 싱글 채널 비디오, 12분 20초, 2022

파레틴 오렌리, 〈좀비개미〉, 싱글 채널 비디오, 5분 46초, 2023

소피아 코르도바, 〈새벽\_초루시: 라프레쿠엘라〉, 싱글 채널 비디오, 45분, 2016-2021

이선주, 〈비행〉, 싱글 채널 비디오, 20분 3초, 2022

## 레일라 스티븐스, 〈그로 고〉, 싱글 채널 비디오, 29분, 2023

〈그로 고〉는 신화적 인물인 발리의 묘지의 여왕이자 흑마법의 수호자인 랑다Rangda를 둘러싼 행위를 재상상한다. 랑다와 그녀의 환생인 전설적인 마녀이자 미망인인 칼로나랑Calonarang의 이야기는 발리의 정신 우주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을 위협하고 일탈적인 성격의 사회적 교란자로 묘사하고 있다. 랑다는 두려움을 주는 타자성과 함께 영적 질서와 강력한 모계의 균형을 가져오는 힘으로 여겨진다. 이 영화는 모계적 구축과 랑다에 대한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며 신체와 퍼포먼스와 그리고 풍경을 통해 그의 현존을 전달한다.

## 레일라 스티븐스

레일라 스티븐스는 호주계 발리 출신의 예술가로 촬영을 기반으로 작업한다. 그의 작품은 호주 비디오 아트계의 확장 다큐멘터리 장르에 지대하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진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그의 작업은 옛이야기들 속의 장소, 기록물, 문화적 지형, 퍼포먼스 등을 초문화적 관점을 통해 풀어간다. 2021년에 작가는 발리의 억압된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다룬 영화 키둥Kidung으로 제66회 블레이크 미술상을 수상했다. 최근 현대 미술관, 타라와라 미술관, UQ 미술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캠벨타운 아트센터, 광동 타임즈 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했으며, 더 내셔널 2021: 호주의 새로운 예술The National 2021: New Australian Art, 2023년 타라와라 비엔날레, 제17회 욕야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인도네시아와의 디아스포라적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가 집단인 우븐 콜렉티프Woven Kolektif의 멤버로 협력하여 작업하기도 한다.

**안치 (시와스) 린, 〈프스와기 테마하호이〉, 싱글 채널 비디오, 12분 20초, 2022**

〈프스와기 테마하호이〉는 현재 진행 중인 〈테마하호이로 가는 길 찾기〉작업의 일부분이다.

다큐멘터리 비디오 작업과 시각 및 사운드 퍼포먼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비디오 설치 작업을 통해

테마하호이Temahahoi 공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한다. 아타알어에서 ‘P’는 미래시제이고 ‘S’는

유형 또는 무형의 도구를 나타내는 도구형instrumental case 이며 ‘와기wagi’는 태양을 의미한다.

다큐멘터리로 엮은 이야기는 햇빛과 그들의 방향을 사용하여 야생 벌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인 ‘프스와기

pswagi’로 아타알 장로 유민Yumin의 길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테마하호이의 공간을 소리로 재현하기

위해 직접 발명하고 조립한 도자기 악기로 연주하는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프스와기 테마하호이〉는 이전

작품 〈아마도 그녀는 어디에서/어디로\_\_알랑〉의 연장선으로, 여성의 몸과 퀴어의 몸을 위해 테마하호이의

공간을 재해석하고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어디에서/어디로\_\_알랑〉은

불균형한 자연 생태와 퀴어 몸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엮어 기후 위기, 특히 꿀벌이 처한 현실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치 (시와스) 린**

안치(시와스) 린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자란 아타알Atayal/이타랄Itaral 및 대만의 호로 Hō-ló족 출신의

뉴미디어 및 퍼포먼스 아티스트이다. 안치(시와스) 린의 신체 중심적 작업은 퍼포먼스, 영상, 사이버 공간,

도자기 및 키네틱 설치를 통해 토착 아타알 세계관을 엮어 스스로 결정한 퀴어 공간을 주장한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시각 예술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만 타이페이 국립 예술 대학교에서

뉴미디어 아트 석사 학위 과정에 있다. 언어적, 문화적 이주의 경험을 추적하고 이성애 가부장적 현상

유지를 넘어 새로운 퀴어적 이해 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매개체로 삼아 문화 및 성 정체성을

탐구한다.

**파레틴 오렌리, 〈좀비개미〉, 싱글 채널 비디오, 5분 46초, 2023**

수 세기 동안 농촌 지역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1세계 국가로 재화의 이동과 축적이 이루어졌다.

현대에는 이주가 늘어나며, 노동과 노예제도에서 벗어나려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것 같다.

민주주의 제도가 약화되고 1인 권력/선출직 독재자들이 정치권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우리 시대는 세계 중앙집권적인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탐욕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시대이다. 이러한 초점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창의성을 극도로 협소하게 만들었다. 도구 없는 낡은 괴물 자본주의를 인식하지도 못했다. 새로운 괴물을 인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치 좀비 개미처럼, 무기력하게 길을 잃고 있다.

...곰팡이를 염두에 두고: 돈

곰팡이는 개미의 순환계를 통해 뇌로 이동하여 뇌를 환각제로 채우고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한다. 곰팡이는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인형극처럼 개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서 개미의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한다. 곰팡이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숙주를 먹기 시작하며 개미의 살을 점차 자신의 살로 대체한다. 대신 분해까지는 막으며 꼭두각시가 살아있도록 유지한다.

두뇌에 파고들어, 수백만 명이 아닌 수십억 명의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곰팡이가 있는가?

## 파레틴 오렌리

파레틴 오렌리는 암스테르담, 이스탄불,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는 다양한 매체의 요소들을 수집한 후 이를 전환, 분리, 관찰 및 재구성 과정을 통해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생성하는 데에 주목한다. 네덜란드의 게릿 리트벨트 아카데미Gerrit Rietveld Academie와 라익스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에서 수학했다. 〈국적 없는 돈, 피아이 아트웍스, 런던, 2018〉, 〈3D 선셋, 프로젝트 풀필 아트스페이스, 타이페이, 2018〉, 〈Nature of Me, P21 갤러리, 서울, 2018〉, 〈국적 없는 돈, 아트선재 센터, 서울, 2017〉, 〈하이힐, DEPO, 이스탄불, 2016〉 등의 개인전과 〈Noncomformity, 뮤즈 컨템포러리 갤러리, 이스탄불, 2021〉, 〈The State of Transparency, 루이에르그라트 60, 암스테르담, 2019〉,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는다,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7〉 등의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0년 네덜란드 왕립미술상과 2004년 ABN AMRO 미술상을 수상했다.

## 소피아 코르도바, 〈새벽\_초루시: 라프레쿠엘라〉, 싱글 채널 비디오, 45분, 2016-2021

서부 핀란드의 숲, 뉴멕시코의 사막, 위스콘신 남서부 드리프트리스 지역에서 촬영된 이 연극 속의 연극은 줄리아 데 부르고스Julia de Burgos의 시, 칼레발라The Kalevala, 어슐러 르 권Ursula K. LeGuin의 테하누Tehanu, 클라리스 리스펙터Clarice Lispector의 아구아 비바Agua viva를 배경으로 500년 후 지구에 벌어지는 역사를 보여준다. 이 영상은 공상과학 영상 및 공연 작품인 〈무너지는 왕좌의 메아리 Echoes of a Tumbling Throne〉와 〈빌롱고 리라: 예고된 전쟁에선 아무도 죽지 않는다BILONGO LILA: Nobody Dies in a Foretold War〉의 프리퀄이다. 〈새벽\_초루시: 라프레쿠엘라〉에서는 신뢰했던 일련의 의식들이 점차 실패한다. 이 실패로 〈무너지는 왕좌의 메아리〉와 〈빌롱고 리라: 예고된 전쟁에선 아무도 죽지 않는다〉에서 디지털로 타락한 지구로 향하는 불특정의 취소들이 발생한다.

## 소피아 코르도바

소피아 코르도바는 계급, 성별, 인종, 후기 자본주의와 발달해가는 기술의 망 안에서 공상과학을 대안적인 역사로 바라보거나 댄스 음악의 해방적 영역과 기후 변화와 이주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최근에는—역사적이고 또한 상상적인—혁명에 대해 다룬다. 그는 퍼포먼스, 비디오, 사운드, 음악, 설치, 사진 매체로 작업하며 때로는 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코르도바는 슈샤 산타마리아XUXA SANTAMARIA라는 2인조 음악그룹의 일원이며 그룹은 그의 비디오 작업의 작곡을 담당하기도 한다. 작가는 휘트니 미술관, 터프츠 대학 갤러리, 버팔로 현대미술 연구소Buffalo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아리조나 주립대학 미술관, 빈센트 프라이스 미술관, 와티스 연구소Wattis Institute, 예르바 부에나 예술 센터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푸에르토리코 현대미술관, 상하이의 아트허브Art Hub와 독일의 MEWO Kunsthalle 등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전시활동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 새너제이 미술관, 머스 커닝햄 기금과 사운드웨이브 비엔날레를 위해 퍼포먼스를 작곡 및 연출했다.

## 이선주, 〈비행〉, 싱글 채널 비디오, 20분 3초, 2022

이선주는 인간이 만든 기술을 비인간의 시선에서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방법들을 상상한다. 〈비행〉은 한 마리의 빠꾸기(개체 번호 62395)의 1년간의 이동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채널 영상 설치작업이다. 한국 양평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보츠와나까지 이동했던 빠꾸기가 다시 양평으로 돌아오는 약 20,000km의 경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추적한다. 이선주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빠꾸기가 지나간 위도와 경도 좌표들을 따라가고 그 선상에 있는 지역명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지역명을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유튜브 등)에 검색하여, 검색 결과로 나온 동영상들을 새의 이동 경로와 함께 스트리밍한다. 새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아준 시점부터 새가 이동하고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가 <비행>의 시작과 끝이다. 빼꾸기는 한국, 중국, 미얀마, 인도, 소말리아, 케냐, 짐바브웨 등 수많은 국가와 지역, 사막과 바다, 숲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나며 그 곳에 사는 사람들, 문화, 동물들, 식생 등이 검색되어 들어지는 비디오들을 통해 중첩되어 보여진다.

## 이선주

이선주는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2018년에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Design Academy Eindhoven 학사를 졸업한 후 엔지니어 혹은 생태학자와 협업하여 예술, 전자기술, 생태를 결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기술을 통한 미래의 공생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탐구한다. 자주 사용하는 매체는 비디오, 로봇, 드로잉, 글쓰기 등으로 다양하다. 미술과 기술의 협업에서 주로 아트 디렉션과 작품의 외관과 기계 부품 디자인, 전시 디자인을 도맡아서 한다. 엔지니어 코 데 비어Ko de Beer와 자주 듀오로 활동하며, 그녀의 작업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제로원데이, STRP 등의 다양한 예술 기술 융합 페스티벌과 예술공간에서 전시되었다.

## 어스시 토크+스크리닝

### 스크리닝 트래블링 일정

샌프란시스코: 2023년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아트 커미션

서울: 2023년 12월 20일-12월 29일, 대안공간 루프

타이페이: 2023년 12월 22일, 솔리드 아트

### 참여 아티스트

레일라 스티븐스, 소피아 코르도바, 안치 린, 이선주, 파레틴 오렌리

### 참여 큐레이터

미라 아스린티야스, 양지윤, 이선미, 재키 임, 홍페이 우

## 토크 일정

2023년 11월 17일 2:00PM, 재키 임, <미래를 제시하기: 과학과 공상과학 소설 속 위기를 헤쳐나가는 삶의 탐구>

2023년 11월 17일 4:00PM, 미라 아스린티야스, <모든 방해꾼의 어머니: 마녀, 여신, 대지의 수호자>

2023년 11월 24일 4:00PM, 이선미, <인간이 지배하는 자연은 정당한가>

2023년 12월 20일 6:00PM, 양지윤, <어스시>

2023년 12월 27일 3:00PM, 홍페이 우, <'몸의 조류'에서 '사이팅 바'까지 - 페미니스트 환경 인문학의 실천>